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베드로의 서신에서 배울 교훈(1)

2024년

4월~6월

목 차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5
2. “나그네들”.....	10
3.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	15
4. 하나님의 말씀.....	20
5. 살아있는 돌들.....	26
6. 세상에 증거함.....	31
7.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보내는 호소.....	36
8. 그리스도인의 태도.....	41
9.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침례.....	47
10. 새로운 생애를 삶.....	52
11. 열렬한 사랑.....	57
12.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62
13. 근신하라, 깨어라.....	67

안식일 성경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 의성사

전 화 : 054) 435-1843

팩 스 :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 www.sdarm.or.kr

(상기 주소나 오른쪽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칠일재림교개혁운동

서문

우리 중에 솔직하게 말하는 제자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인간성은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성이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그의 열정적인 열심과 준비된 의지는 고무적이다. 우리는 그가 가끔씩 당혹스럽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분명히 공감할 수 있고, 그가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난 모습을 보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숙해진 과정을 통해 그를 고귀한 사도직으로 이끌었고, 두 서신은 성경의 신성한 정경에 포함될 가치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전 세계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베드로의 서신에서 배울 교훈(I)”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영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풍부한 진리의 보석은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베드로 서신의 핵심 요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나는 증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8.

흥미로운 간증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장을 위해 모을 수 있다는 강한 호소력을 불러일으킨다. “내 형제여,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성화되도록 맡기신 재능의 달란트가 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그대의 능력은 그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위협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들이 진리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_____에 있는 교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매우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뜨거운 열성을 가져야 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인내하고, 더욱 친절하고, 더욱 가르침을 잘 듣고, 모든 면에서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 그들은 품성을 통하여 성화케 하는 은혜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교훈과 모본으로 이 필수적인 과업을 완수하는 길을 막지 않도록 명령하신다. 그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겠는가? 그대는 그대를 속량하신 주님께 성실하겠는가? 그대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뒤로 돌리겠는가? 그대는 더 큰 믿음과 행함, 더 큰 사랑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대는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것들을 더 크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회증언 5권, 570, 571.

우리 모두가 공부할 때 이 점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파키스탄 나랑 만디 교회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제철일 재림교 개혁운동의 기별이 20세기 후반에 파키스탄에 들어왔다. 파키스탄 전체 인구는 2억 4,150만명으로, 대다수의 종교는 이슬람교(96.47%)이며, 힌두교(2.14%), 기독교(1.27%), 기타 종교(0.11%) 순이다.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 아라비아해, 이란으로 둘러싸여 있다.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20.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의 경제는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과 세계은행이 정한 대부분의 개발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랑 만디는 편자브 주 무리드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전체 구역의 총 인구는 500,000명이 넘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파키스탄 형제들의 교회 활동 발전을 위해 모임, 세미나 및 기타 활동을 진행해 왔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활동은 전국으로 퍼졌다. 우리는 선교 사업, 건강 교육, 지도력 개발, 교육 센터 건립, 파키스탄의 오래된 교회 수리 등 주님의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님께서 이때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도시들에 들어가 단순함과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라. 성령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기별에 이상한 교리를 소개하지 말고, 젊은이와 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교육받은 자뿐만 아니라 무식한 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이해해야 하며 그들은 단순하게 가르쳐야 한다. 만일 그대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 만한 태도로 접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방법을 배우라.” -의료 봉사, 299.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는 환영 받을 것이며 그분의 사업은 우리 손에 맡겨진 자금의 일부를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파키스탄 선교부의 형제자매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분의 대업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청소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파키스탄 교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 32)

“베드로가 부목자로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후의 일이었다. ...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배우기 전까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없었다.” -사도행적, 515.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244~251.

첫째 날(일요일)

3월 31일

1.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함

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묘사해 보라. 요 1:40~42.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시몬은 두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셨다.” -시대의 소망, 139.

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마 4:18~20.

“이 사람들이 봉급의 약속도 없이 즉각적으로 의심 없이 순종함은 이상한 듯 하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말씀에는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천한 어부들을 자기와 함께 사람들을 사단을 섬기는 데서 건져 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하셨다.” -복음전도, 24.

2. 성실하고 열정적인 제자

가. 베드로는 제자의 신분이 시작될 때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눅 5:8.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화를 가진 부자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11)고 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속한 부류는 물론 크게는 국민 전체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가운데는 자신들의 영적 빈곤을 느낀 자들도 더러 있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엄청난 어둠고를 올리는 이적을 통해 드러나자,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 산 위에 모여 있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서 자신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계 3:17)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산상보훈, 6, 7.

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 무엇을 믿었는가? 마 16:13~16.

“당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었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요 6:45)았다는 증거였다.” -시대의 소망, 411, 412.

3. 답변을 간절히 원함

가. 어떤 성경의 예가 베드로의 탐구적인 정신을 보여 주고, 우리도 동일한 태도를 발전시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가? 마 15:15; 18:21; 19:27; 막 13:3, 4.

“성경 연구만큼 모든 사상과 감정과 포부를 고상하게 해 주는 연구는 달리 없다. ...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지 배울 수 있다. 다른 어떤 책도 마음의 의문과 정신적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거기에 유의함으로써 사람은 가장 낮은 무지와 타락의 밀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는 천사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

교육시키는 능력으로써 성경과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엄청난 계시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기능들에 것처럼 활력을 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정신은 생각하도록 허용되는 주제에 차츰 절로 적응된다. 통속적인 주제에만 몰두하고 위대하고 고상한 주제들을 배제해 버리면 정신은 위축되고 약해진다.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고 중요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결코 요구받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 후에 성장의 능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정신은 가장 심오한 사상, 가장 고상한 열망을 요하는 주제를 발견한다.” -교회증언 5권, 24, 25.

“가장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호소, 32.

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장려되지만(요 5:39), 건전한 인간의 호기심에는 언제 제한이 있는가? 신 29:29.

“그[사단]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부조와 선지자, 54, 55.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위엄을 가리고 계신 휘장을 주제넘은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 그분의 능력이 숨겨져 있고, 그분이 신비와 모호함의 무서운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그분의 자비에 대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휘장을 걷어내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5.4.7.

4. 적은 믿음, 많은 자신감

가. 믿음으로 행한 베드로의 첫 번째 기록된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마 14:28~31.

“그[베드로]는 그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요동하는 물결을 바라보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졌다.” -교회증언 2권, 273.

“그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사단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하고, 인간을 바라보게 하며, 인간을 신뢰하도록 하고, 인간에게서 도움 받기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을 단호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교회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해 왔으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3.

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자기 자신과 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는가? 마 26:33~35, 69~75.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실물교훈, 154.

“제자들의 경력을 보면 베드로보다 그리스도의 교육법을 잘 예시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 대담하고, 잘 다루고, 자신감이 넘치며, 지각이나 행동이 예민하고, 금방 복수하고 금방 용서하는 성질을 가진 베드로는 때때로 잘못을 거듭하여 견책을 받았다. ...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이 성급한 제자를 다루심으로 그의 자만을 견제하시고, 그에게 겸손과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고자 노력하셨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은 그 교훈의 일부분뿐이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근절되지 않았다.

베드로의 경험은 모든 제자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서 시련은 패배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한 죄의 확실한 결과는 어찌할 수 없으시다. 그러나, 파도가 베드로를 휩쓸어 버리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퍼졌던 것처럼, 큰 물결이 그의 영혼을 휩쓸려고 하는 이 때에도 그분께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셨다.” -교육, 88, 89.

다. 왜 오랫동안 교회의 신자가 되어도 믿음의 더 큰 힘이 보장되지 않는가? 롬 11:20-22; 고전 10:12; 8:2.

5. 돌이킨 사도

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죄와 수치로 끝날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항상 막지 않으시는가? 사 48:17; 눅 22:31, 32.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하라’(눅 22:32)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 사도가 신앙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장차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할 것을 의미하였다. 베드로 자신의 범죄와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그가 자기의 연합을 배우기 전까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없었다. … 이제 회개하고 가납하심을 받았다. … 그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떼와 어린양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루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다루어야 하였다.” -사도행적, 515, 516.

나. 돌이킨 베드로는 말년에 시련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격려를 하였는가? 벰전 3:14; 4:12~14.

“이 편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그분의 위로가 풍부하였던 사람, 그의 전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명각을 지니고 있다.” -사도행적, 51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59

1.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베드로처럼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2.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고백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무엇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가?
3. 끊임없이 주의가 산만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내가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4. 삶의 어떤 측면에서 나는 자기신뢰와 자기만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5. 내가 실수했을 때, 그 경험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나그네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벧전 1:6)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이며 순례자이며 나그네들이다. 하나님께서 억누르라고 명하시는 욕망을 만족케 하는 일에 우리의 자금을 쓰지 않도록 하라. 차라리 우리의 친구들 앞에서 바른 모본을 제시하라. 우리의 소원을 제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적절히 나타내도록 하라. … 그대들의 영향력이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요구의 신성성에 대해 깊은 감동을 주게 하라.” -교회증언 6권, 452.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17~38.

첫째 날(일요일)

4월 7일

1. 특별한 청중에게 보내는 서신

가.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주로 받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언급했는가? 벧전 1:1.

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벧전 1:2; 2:9; 엡 2:19.

“그와 같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참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부조와 선지자, 447.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은 세상을 오염시키는 모든 영향력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와도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왕족, 하늘 왕의 자녀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진리를 믿는 우리는 실천에 있어서 죄와 죄인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예를 더욱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481.

2. 하나님의 택하신 자

가. 베드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부른 것은 일단 선택되면 우리가 멸망할 수 없다는 뜻인가? 요 15:16; 눅 3:8,9; 눅 6:13~16; 요 6:70,71; 사 41:8,9; 롬 11:20~23.

“유다가 우리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을 때, 그의 상태는 절망적이지 아니었다. 그는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만일 그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열망했다라면 그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그의 품성의 결점들을 잘 알게 될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가 자신의 탐욕적인 성향을 계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고치거나 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지기까지 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전도 사업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 모은 적은 재물을 보관하였다. ...

이 적은 돈이 유다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었다. ... 우리 구주께서는 이같은 탐욕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셨다. 이것은 유다의 마음에 사무쳤으므로, 마침내 그는 적은 액수의 돈을 위하여 그의 주님을 배반하기로 동의하였다. 안식일 준수자들 가운데 유다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진실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증언 4권, 42.

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심이 확립된 원칙은 무엇인가? 뱀후 3:9; 딤후 2:4; 엡 1:4, 5.

“아버지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택하신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값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하는 자녀로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다. ...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포함될 것이다.” -영문시조, 1893.1.2.

다. 우리의 선택을 보장하고 유다의 슬픈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뱀후 1:10; 3:17; 요일 3:2, 3.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따른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선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로 완고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6권, 1079.

3. 격려의 말

가. 구원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뱀전 1:3; 시 72:18, 19.

“노령의 하나님의 종은 그의 첫 편지의 허두에 그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 사도행적, 517.

나. 베드로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들을 어떤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가? 뱀전 1:3[하단], 4; 히 11:26 참조.

“새롭게 된 땅에서 언을 확실한 유업을 바라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즐거워 하였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 사도행적, 517, 518.

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뱀전 1:6, 7; 마 5:11, 12.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지도하기만 하면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써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추어 있는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그분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정결해 지게 하신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계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택한 사람들이 어떤 기질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이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 - 치료봉사, 471.

4. 믿음에 대한 진술

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벤전 1:5; 눅 8:48.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만이 그대들이 할 일이다’ 진실한 믿음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리뷰 앤 헤럴드, 1886.10.5.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구하는 묵상기도를 통해 마음의 갈망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는 시대를 열렬하고 신실하게 개선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는 수고와 기도가 모두 요구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17.

나. 믿음에는 왜 시련이 필요한가? 벤전 1:7; 욥 23:10; 약 1:3.

“최후의 승리를 거둘 각 사람의 신앙 생애에는 무서운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경 지식이 고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줄 것이며, 그 약속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해줄 것이다. ...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일부분, 곧 그들을 세속적인 찌꺼기에서 순결하게 해 주고 정화시켜 주는데 필수적인 교육의 일부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81.

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벤전 1:8, 9. 이것을 믿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와 비교해 보라. 히 11:1.

“우리가 계곡을 걸을 때라도 우리가 산꼭대기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곳을 신뢰하며 걸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그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짐을, 짐을 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느냐? 그대는 십자가의 양지바른 편에서 살지 않겠는가?’” -마음과 품성과 인격 2권, 811.

5. 구원의 신비

가. 왜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이후에 이해하기 쉬워졌는가? 뱀전 1:10~12; 눅 10:24; 요일 1:1~3.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

그러나 …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빛을 얻고자 열렬히 노력했다. … 그 예언들이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졌던,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가! … 후세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그 계시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열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냉대하는 후세의 사람들의 끝없는 무관심과 대조해 보라. 그 성도들의 태도는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일을 좋아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얼마나 힘 있는 견책인가!” -각 시대의 대쟁투, 344.

나. 구속의 계획은 왜 천사들에게도 비밀인가? 뱀전 1:12[하단]; 고전 4:9.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救贖) 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19, 20.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05

1.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순례자, 즉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이 나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가?
2. 나의 선택과 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3. 내가 시련과 유혹을 용감하게 견딜 수 있도록 더 잘 준비시켜 주는 것은 무엇인가?
4.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5. 구속의 계획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22)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들의 과업은 겨우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만 할 더럽고 죄악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20.

참조할 연구교재: 정로의 계단, 43~48.

첫째 날(일요일)

4월 14일

1. 우리의 생각을 신중하게 선택함

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된 순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벧전 1:13, 14; 롬 12:2.

“모든 참된 개혁은 영혼의 정결로부터 시작된다.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중생의 씻음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긴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만일 마음이 세속적인 사물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런 사물들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품성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어버리게 된다. 하늘 사물과 친숙하게 될 기회는 무시되고 영적 생명은 죽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05.

나. 인간의 생각과 동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창 6:5; 렘 17:9.

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 8:22.

2. 생각의 냉철함

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가? 창 4:7.

“사단의 간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닳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편지하였다.” -사도행적, 518.

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왜 매우 중요한가? 잠 23:7[상단]; 24:9[상단].

“그대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며, 그대의 감정도 이성과 신앙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제재나 단련도 하지 않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행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이 그릇되면 감정도 그릇될 것이나, 조화된 생각과 감정은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악한 천사들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들의 존재와 통제를 받게 된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기본대로 행동하고 그대의 생각이 의심과 불평의 길을 달리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5.4.21.

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벰전 1:13과 5:8을 비교하라.

“그대의 생각들을 충실하게 지키라. 그대의 마음에 접근해 오는 모든 기만을 잘 저지해야 한다. 사단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지점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지점을 무시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 우리 앞에는 우리가 맞서야 할 위험들이 놓여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174.

3. 이전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라

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어떤 면에서 극도로 근신해야 하는가? 뱀전 1:14, 15; 4:2, 3.

“아무도 지금 품고 있는 죄를 점차적으로 쉽게 끊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 타락이 따르게 된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 형성된 틀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그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단은 형성된 악습을 통하여 그대를 되풀이해서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실물교훈, 281.

나.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지만(뱀전 1:15, 16), 이는 마치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레 20:7, 8; 빌 2:13; 딤후 3:5.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사랑 안에서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보상을 받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 다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다. ... 우리가 성취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리뷰 앤 헤럴드, 1893.6.27.

다. 사도가 정신을 차리라고 호소한 후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뱀전 1:17; 골 3:5, 6.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진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1, 482.

4.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

가. 베드로는 이전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타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제시하는가? 벡전 1:4, 18, 19; 고전 6:18~20.

“모든 사람은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 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에 따라 큰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해 회계(會計)해야 할 것이다.” -실물교훈, 326.

나. 구속의 계획은 언제 세워졌는가? 딤후 1:8, 9.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상황에 맞게 세우지 않으시고 문제가 전개되고 성취되도록 허락하셨다. 그분은 사물의 어떤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 일하지 않으셨지만 그러한 상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하늘의 높은 지성들이 변절할 때 수행해야 할 계획, 이것이 바로 비밀이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온 신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행하신 바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원한 목적으로 제물이 준비되었다.” -영문시조, 1897.3.25.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가? 롬 10:17; 벡전 1:21.

“아무도 믿음을 창조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밝게 해 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창조한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로써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성결케 하는 능력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40.

5. 순종의 면류관

가. 사도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이전 정욕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한 후, 순종의 궁극적인 형태로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가? 벵전 1:22.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그분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낸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한다.” -사도행적, 519, 520.

“너희가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 그러므로 사업을 맡은 모든 사람, 전도하는 사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원칙을 충실히 보존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판봉사, 297.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들의 죄악을 들춰내고자 기회를 엿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 가장 적은 분량이 라도 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벵전 1:22 인용] …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기질, 목적, 말과 행동의 특성에 관해서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이기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가져야 할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낮게 여기도록 충동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83.

“만약 우리 자신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이 그를 정죄하는 사람은 그토록 쉽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떨게 하라. …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벵전1:22)” -리뷰 앤 헤럴드, 1901.10.29.

여섯째 날(금요일)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1

1. 죄악되고 불결한 생각이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내 동기의 성격에 관해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3. 내 삶에서 어떻게 더 깊은 순수함을 키울 수 있는가?
4.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감사를 더욱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형제자매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의 말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萌芽力)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 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실물교훈, 38.

참조할 연구교재: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89~191.

첫째 날(일요일)

4월 21일

1. 필수 요구 사항

가. 예수님께서서는 청중들에게 어떤 구원의 필수 조건을 제시하셨는가? 요 3:5~7; 마 18:1~3.

나.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지적하였는가? 벧전 1:23.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새로운 개념이 일깨워지며,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활력이 일깨워져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다. ...

그리스도는 세상에 진리를 계시하는 분이셨다. 그분에 의해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말씀은 자연적이고 땅에 속한 본성을 파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곧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부여한다.” -믿음으로 살리라, 19.

2. 영원 vs 일시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것들

가. 베드로는 인간 생명의 취약성에 관해 말할 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벰전 1:24; 사 40:6~8.

나. 성경 전체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무엇에 비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 103:15, 16; 약 4:14.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 것인지 모른다. 가장 오래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만 찰막한 일생을 지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화살이 얼마나 빨리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것인지 알지 못한다. ...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시요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본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요 17:4-6)” -치료봉사, 454.

다. 인간의 삶이 풀과 안개와 같다면, 하나님만큼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벰전 1:25; 시 119:89.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는 반석 위에 이 집들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사 40:8)고 기록하였다. 베드로도 산상 설교가 있는 지 훨씬 후에 이사야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벰전 1:25)고 부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불변의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기초이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고 말씀하셨다. ...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분 위에 집을 짓고 있다. ...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이신, 다시 말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현현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가 영구적인 품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위에 집을 짓게 된다. ... 거룩하게 되는 것은 ...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다.” -산상보훈, 149.

3. 걸림돌을 제거함

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 걸림돌을 말해보라. 벵전 2:1, 2.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충만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존재하도록 기도하신 연합을 손상시킬 감정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리뷰 앤 헤럴드, 1893.7.25.

“우리가 가장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다. 면밀히 자신을 비판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임하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말며, 조급하게 야단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자가 있는 장소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비난하는 말은 보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 ... 생각 없이 경솔하게 내뱉은 말은 그 자리에서 취소해야 한다. ...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하늘에서, 182.

나. 굴복하지 않는 비통함, 위선, 시기심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보라. 창 4:5~8; 막 15:10; 행 13:44, 45.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실물교훈, 143.

“질투는 단순히 기질의 왜곡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이다. ...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특성과 고상한 행동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 그는 언제나 비방하기에 민감하고 탁월한 것을 허위로 대표한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결함들을 고백하고 버리지만, 질투하는 사람에게서는 바랄 것이 거의 없다. 사람이 질투한다는 것은 그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존심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깨우쳐 주고자 시도하면 그는 그의 감정의 대상에 대하여 더 한층 가혹해지고, 너무도 흔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독을 발산하여 친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증오와 반역을 일으킨다.” -교회증언 5권, 56.

4.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

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회심시키는 능력임을 지적한 후, 베드로는 어떤 종류의 “소망”을 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벵전 2:2.

“성경은 연구하면 할수록 그 진가를 깨닫게 된다. ...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지능을 발달시킴에 적합한 것은 없다. 다른 책은 성경의 광범하고 고상한 진리처럼 사상을 고상하게 하고 재능을 발달시키는데 그렇게 효력이 있지 못하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연구할 것 같으면 사람은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관대한 마음과 고상한 품성과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얻은 지식보다 더 견고하고, 확실하며 원대한 지식은 없다.” -하늘에서, 135.

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를 말하라. 요 3:19, 20.

“그대들은 성경을 등한히 했다. 그대들은 증인들이 그대들이 좋아하는 죄를 책망하고 그대들의 자기만족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했다.” -교회증언 5권, 49.

다. 아테네의 많은 철학자들은 무엇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인터넷과 사회적 매체의 부절제한 사용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유사한 문제는 무엇인가? 행 2:21~23, 32; 고후 4:3, 4.

“청년들이 자극적인 이야기가 그 마음에 끼치는 감화를 숙고하기를 바라노라. 그대가 이러한 독서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흥미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책이 흥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가?” -재림신도의 가정, 416.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와 소설을 읽음으로 마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며, 만일 그들이 이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인생과 운명에 관한 엄숙한 문제들을 올바른 빛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1.4.14.

5. 영적으로 성장하기

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벧후 3:18[상단].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들은 영원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마침내 승리할 모든 영혼의 경험 가운데 난관과 시련의 장면이 있게 될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한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혹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에 위안을 가져다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약속들을 마음에 상기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사도행적, 521.

나.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 벧전 2:3; 히 6:4~6.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옹호해 온 오랫동안의 세월을 만족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그들의 과거의 시련과 순종 때문에 상급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성실을 유지하면서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의 이 진실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더욱 죄가 많게 한다. 지난날의 성실이 현실의 대만을 결코 속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어제의 정직이 오늘의 거짓을 속해 줄 수 없다.” -교회증언 5권, 63.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과거의 신앙적인 경험이 피상적인 일에만 머물렀던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교회증언 9권, 21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8

1. 진정한 개심의 경험의 열매는 무엇인가?
2. 오늘 밤에 내가 죽게 된다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들을 향한 나의 감정의 원인은 숨겨진 질투나 시기심 때문인가?
4. 개인 성경연구를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5.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정체되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세계 선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 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 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시대의 소망, 825.

영적으로 말하면, “추위와 눈보라 속에 길을 잃은” 이 어린이들은 누구인가?

“무지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천천만만의 영혼들은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기조차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과 뒤바뀐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시대의 소망, 640.

“진리의 빛을 만방에 두루 비추어 무지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의 정신을 깨우쳐야 하고 회개시켜야 한다. 모든 나라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전도, 19.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4, 15[상단])

세계복음화는 지금 필요하지만 문은 아직 열려있다. 실제로, 이 시간에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되새길 수 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4, 5)

이 어두운 행성에서 기별이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 모두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때까지 이 사업에 시간, 관심, 정력, 돈을 진심으로 투자해야 한다. 세계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관대함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 대총회 형제들로부터



살아있는 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이 때를 위한 진리를 이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듣는 법과 실천하도록 다른 이들을 세우고 교육하는 법에 유의해야만 한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22.

참조할 연구교재: 예언의 신 2권, 272~274.

첫째 날(일요일)

4월 28일

1. 과거에 예시된 내용

가. 이사야의 예언(사 28:16)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벧전 2:4, 6.

나. 이 실례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졌는가? 벧전 2:7.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건축 장소에 옮겨지면 일꾼들이 이것들을 제 위치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다. ...

돌을 건축하는 장소로 가져올 때에는 그 위에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모양이 불규칙한 돌 하나를 채석장에서 가져와 성전의 기초로 사용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것을 놓을 곳을 찾을 수 없었다. ... 이 돌은 저희 길에 쓸데없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찮은 물건이 되었다. 오랫동안 이 돌은 버려둔 채 있었다. 그러나 모퉁이의 돌을 놓으려고 하여 건축자들이 와서는 충분한 크기와 강도(強度), 그 위에 올려놓을 큰 무게에 견딜 수 있는 돌을 오랫동안 찾았다. 만일 그들이 이 중대한 곳을 위하여 현명하게 돌을 선택하지 못하면 온 건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었다. ...

마침내 건축자들의 관심이 이 큰 돌에 끌렸고, 그들은 그것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미 모든 시험을 거쳤다. 시험한 후에 이 돌을 채택하여 배정한 장소에 가져가니 꼭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언의 신 3권, 36, 37.

2. 주된 초석

가. 예수께서는 시몬을 “돌”이라는 뜻의 “게바”라고 부르셨지만(요 1:42; 마 16:18, 19 참조),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반석”이 될 수 없는가? 마 26:73, 74; 갈 2:11~13.

“베드로는 행동에 있어서 충동적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대담하고 비타협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서 교회에 큰 가치가 될 요소를 보셨다.” -교회증언 4권, 488.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시대의 소망, 413.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이 ‘반석’이라는 그분의 표현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신 그분 자신에게 적용되었다. 사 28:16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그것은 눅 20:17, 18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돌이다. ... 또한 막 12:10, 11에도 있다. ...

이 본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예언의 신 2권, 272, 273.

나.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기보다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형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갈 2:9; 벰전 5:1; 엡 2:20, 21.

“야고보는 회의를 인도하였으며 그의 최종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자는 것이었다. ...

이로써 토의는 끝났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반박거리를 찾을 수 있다. ... 베드로가 지극히 높은 자의 대리자로서 그의 형제들보다 높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그의 생애 가운데는 아무 것도 없다.” -사도행적, 194, 195.

다. 베드로는 누구를 교회의 유일한 견고한 반석과 참된 기초로 여겼는가? 벰전 2:3~6.

3. 걸림돌

가. 예수님의 특성 한 가지와 그것이 죄인을 위한 복음 기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해 보라. 뱀전 2:4[상단], 7.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의 감동적인 반응으로 그대가 하늘로서 오는 기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하게 하라. 이것이 매우 구식임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굶주린 영혼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에 대해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제가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 반응은 그대의 영혼에 힘이 되며 남들에게 용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는 빛을 내는 산 돌들이 있다는 증거를 줄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67.

나. 현대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말씀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롬 9:31~33; 뱀전 2:8.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SDA 대총회에서]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 92.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게 대해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옳은 것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79, 80.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속한 상태를 보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 그들이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구원하는 진리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증언 1권, 210.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들의 현 실태에 적절한 것이다. 이에 묘사된 말씀이야말로 저들의 생애에 거룩케 하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모든 진리를 가졌노라고 자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밝히 나타내 주고 있다.” -믿음과 행함, 82, 83.

4. 산(살아있는) 돌이 됨

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벵전 2:5.

나.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산 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엡 4:13, 15, 16. 이것을 계 3:1[하단], 2과 대조해 보라.

“지금 우리는 참으로 지성적인 사람들과 합세하여 일하여야 한다. ... 가급적 우리는 거친 돌들을 하나님의 작업장에서 깎아내고 네모지게 하여 모든 모난 것들이 제거되고 거룩한 손으로 다듬어지게 해서 마침내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귀한 돌이 되고 빛이 나는 산 돌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처럼 저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날 수 있다.” -복음전도, 573.

“주님께서서는 무정한 봉사, 참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일련의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산 돌들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다면, 오락과 야유회와 즐거움을 사랑하는 교제를 위해 연구하고 계획하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연구한다면 ... 그들은 결코 흥분이나 변화에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참된 관심이고 우리 백성의 구원이 우리가 영원한 반석에 고정되어 있는데 달려 있다면, 우리는 건물 전체를 모퉁잇돌에 붙들어 줄 것을 찾는데 참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혼란을 겪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461, 462.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신령한 제사”는 무엇인가? 벵전 2:5[하단]; 시 51:17; 삼상 15:22[하단].

“예물을 드리는 정신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없으며, 그대에게 하나의 승리도 확실하게 해 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희생이라도 하고자 하나, 그들이 해야 할 바로 그 희생, 곧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은 하지 않는다.” -교회증언 4권, 84.

5.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대로인가?

가.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말씀을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가? 벤전 2:9[상단], 10.

나. 벤전 2:9의 말씀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가? 벤전 2:5, 9[하단]; 마 5:16; 롬 2:28, 29.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연구함으로 깨우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재능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 (벤전 2:9)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을 절실히 깨달을 것이며 자신의 실제적인 무지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정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배양하여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7.

“하나님께서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 세상을 채우고 빛을 반사할 자리를 갖고 계신다.” -리뷰 앤 헤럴드, 1890.4.1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24

1. 나 자신의 사상보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2.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서 교회에 큰 가치가 있는 자질을 보셨다. 우리 교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내가 교회를 위해 충실하게 일한 기간이나 개혁의 여러 측면에서 진전을 구원의 공로로 계산할 위험이 어떻게 있는가?
4.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참으로 “산 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5. 단순히 이름만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거룩하고 “독특한” 그리스도인을 식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증거함

“하나님의 뜻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벧전 2:15)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적, 69.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1권, 358~361.

첫째 날(일요일)

5월 5일

1.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것을 피함

가. 모든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전투는 무엇인가? 벧전 2:11; 요일 2:15, 16.

“사도 베드로는 정신과 육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였으므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 형제들에게 경고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오직 방탕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해로운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금한다. 타락한 모든 식욕은 싸우는 정욕이 된다. 식욕은 그것이 변질되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으로 타락함으로써 죽음의 봉사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요 좋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게 하는 유혹의 강도(強度)는 광야에서 저 오랜 금식 중에 겪으신 우리 구세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고민으로 측정될 수 있다. 주님은 변질된 식욕에 탐닉하는 것이 사람의 식별력을 무디게 하여 거룩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아셨다. ... 만일 인류에게 가해진 방종한 식욕의 권세가 그렇게도 강하여 그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인류를 위하여 거의 여섯 주일의 금식을 견디셔야 하셨다면,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있는 과업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투쟁이 클지라도 그는 이길 수 있다. 그 거룩하신 능력의 도움으로 그도 역시 악과 접 전하여 완전히 성공할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66, 167.

2. 선한 일을 통해 전파함

가. 모든 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낯선 사람, 심지어 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벵전 2:12; 고전 1:18, 23; 2:14.

“그[바울]의 유대인 청중 가운데는 그가 선포하려고 하는 기별로 분노하게 될 사람들이 많았다. 헬라인의 견해로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향상이나 인류의 구원에 관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능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사도행적, 245.

“옛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이 세상의 정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당시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수는 없다. 진리를 반대하는 양태가 바뀌어지고 더욱 교묘해진 나머지 적의(敵意)가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적개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144.

나.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지적하는가? 벵전 2:12, 15.

“우리의 목사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전해야 한다. 부드러움으로 녹은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류에 빠진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대가 만나서 일하는 사람이 진리를 당장에 수용하지 않으면, 그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말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불신과 반대를 만날 각오를 해야 한다.

진리는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설사 가장 심한 반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반대자를 정죄하지 말라. ...

그대는 오류에 빠진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 그대 자신은 최근에 죄 가운데서 헤매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향해 인내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대도 남들에게 부드러우며 인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결길로 가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큰 친절을 베풀라고 많이 권면하셨다.” -교회증언 6권, 121.

3. 그리스도인의 복종

가. 국가 당국과 국법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라. 벰전 2:13~17.

“사도는 신도들이 세상 관원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사도행적, 522.

나. 국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보라. 행 5:29; 출 1:15~17; 단 6:7~10, 21, 22.

“나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분의 친수(親手)로 돌에 새긴 더 높은 율법과 상치되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보았다.” -교회증언 1권, 361.

“우리는 권력자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로나 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말하여야 한다.” -사도행적, 69.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와 권위는 최고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미국 남북 전쟁, 1861~1865년]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361.

다. 우리가 직장에서 “종”이라면, 어떤 유형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벰전 2:18; 골 3:23.

“가장 미천한 일에도 과학이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과학을 그렇게 여긴다면 그들은 노동에서 고상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315.

4. 부당하게 고난 당함

가. 우리를 학대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벰전 2:19, 20; 롬 12:19~21.

“우리는 우리에게 과해진 어떤 실제적 혹은 과학적 피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해서 안 된다. 자아(自我)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다.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

복수하지 말라. 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오해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 그대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하라. ...

만일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말라.” -치료봉사, 485, 486.

나. 하나님께서는 왜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마 5:11, 12, 43~48.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받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준 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악한 자들은 번영케 하시면서 선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려고까지 한다.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박을 묵인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잊으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 또한 의인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는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

5. 본을 따라서

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에 기쁨으로 맞서도록 격려한 후에,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벵전 2:21~2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중의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으셨다.

혹독한 형벌과 순교를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지나지 않는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

나. 사도는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격려적인 예를 제시하는가? 벵전 2:25; 요 10:11.

“그리스도는 많은 양을 찾아 헤매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를 우리로 되돌아오게 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는 특권을 주셨다.” -교회증언 6권, 479.

“모든 우리 사역자들 곧 목사들, 교사들, 의사들 및 기관장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에게 협력하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그분의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저들은 구세주의 사랑에 대하여, 그분의 능력과 신중함과 온유하심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들은 주님을 영혼의 목자요 감독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은 하늘 천사들의 동정과 협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저희의 기쁨이 되고 즐거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저희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며 이름뿐인 신자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84.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30

1. 어떻게 하면 식욕과 정욕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2. 무엇이 내 삶을 복음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로 만들 것인가?
3. 권위에 대한 순종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4. 거짓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소리를 지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5. 무엇이 나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도록 만드는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보내는 호소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벧전 3:2 킹제임스역)

“가정은 천박함, 관능, 비난으로 오염되기에는 너무 신성한 곳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고 선언하는 증인이 있다. 사랑, 진실, 친절, 관용이 마음의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이 되도록 하라.” -마음과 품성과 인격 1권, 157.

참조할 연구교재: 재림신도의 가정, 99~112, 177~180.

첫째 날(일요일)

5월 12일

1. 자주 간과되는 성경적 특성

가. 오늘날 여성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어떤 중요한 원칙을 자주 거부하는가? 벧전 3:1[상단]; 엡 5:22~24; 골 3:18.

“자매여, 그대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그대는 통제의 고삐를 손에 쥐고 그의 뜻을 그대의 비뚤어지고 완고한 뜻과 조화시키려고 했는가? 그대의 남편은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안식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느꼈는가? 거의 없다. ... 아내는 자신을 보살펴야 할 인형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상이 아닌 실제의 짐 아래 어깨를 놓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이해심 있고 사려 깊은 삶을 살아야 하는 여자로서 그대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의 모습을 그가 발견하고 그대의 남편은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그대가 부담을 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극기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대와 결혼했겠는가?

그는 그대가 자기를 제어하며, 명랑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상식을 행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원고모음 17권, 310, 311.

나. 개심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벧전 3:1, 2; 고전 7:10, 13, 14.

2. 조화로운 관계 증진

가.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모본으로 어떤 성경적 예를 사용하는가?
벧전 3:4~6. 이 관계에서 드러난 균형을 설명하라. 창 21:9~12.

“결혼 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 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이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본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님께서도 사라가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부조와 선지자, 147.

나. 무엇이 너무나 자주 남편을 가족 내에서 비참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남편의 평판을 손상시키는가? 잠 14:1; 25:24; 27:15; 이것을 벧전 3:4과 대조하라.

“가정에서 아무런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질책과 불평의 대접을 받는 매우 많은 남편과 자녀들은 가정을 떠나서 목로주점이나 다른 금지된 오락 장소에서 위안과 오락을 추구한다. 집안일에 매어 있는 아내요 어머니 된 이는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특수한 괴로움과 곤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가정을 명랑하게 하는 자잘한 예모들에 대해서 자주 소홀히 한다. 그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준비하기에 골몰하는 동안 남편과 아들들은 외인들처럼 집을 출입한다. 가정주부가 자기의 외적 의무들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처하여 있는 종살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덜거릴 수도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의 보다 고상한 생활에 자신의 처지를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책임과 구속을 과장하여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녀는 공연히 다른 생활을 동경하면서 죄된 불만을 육성하여 자기의 가정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매우 불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재림신도의 가정, 249.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목사의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가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극기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 그의 아내의 매일의 모본은 흔히 그의 설교와 반대되므로 설교의 힘을 소멸시켜 버린다.” -복음 교역자, 210[1892년].

3. 위험한 형태의 교만

가. 그리스도인 아내는 어떻게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가? 잠 31:25~29.

“[아내]는 남편에 대한 가장 철저한 정절로써 그의 가정을 즐겁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에 성실함으로써 남편을 자신에게 결속시키기 위해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598.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무질서하고 느슨하며 철저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결함들은 아주 나쁜 것으로서, 남편이 질서와 잘 훈육된 자녀들과 잘 정돈된 가정을 좋아할 경우 그의 애정은 아내로부터 멀어지기 쉽다. 아내와 어머니 된 자는 질서를 사랑함으로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정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유쾌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부족한 이들은 지금 곧 이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교육해야 하며 가장 부족한 점들을 계발시켜야 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22, 23.

나. 회심하지 않은 여성은 종종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잠 7:6, 7, 10, 18, 19; 왕하 9:30; 사 3:16~26.

“유혹자가 되어 남자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7.5.17.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의복은 그 옷을 입는 자의 마음에 빈번히 욕정을 조장시키고 이를 보는 자의 마음속에 비루한 정욕을 깨우친다. 하나님께서는 품성의 파멸이 의복의 자랑과 허영의 방종을 뒤따른다는 것을 아신다.” -새자녀 지도법, 416.

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의식적으로 남자들을 간음하도록 꾀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의 교만에 대해 모두 경고를 받고 있는가? 벰전 3:3; 딤후전 2:9.

“그대들[그대와 그대의 남편] 모두에게 교만보다도 더 큰 장애는 없었다. 그대들은 과식을 좋아 한다. 이것은 선하고 겸손한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93.

“성경은 의복의 아담함을 가르친다. ... 이 말씀은 의복의 허식, 저속한 빛깔, 사치스러운 장식품을 금지하는 말씀이다. 옷을 입는 자에게 주목을 끌게 하거나 감탄을 자아내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부하는 바 아담한 옷에서 제외된다.

의복에 있어서의 극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일부이다. 겸손하게 입고 온갖 종류의 보석과 장식품을 다는 것을 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일치하는 행위이다” -새자녀 지도법, 423.

4. 남편의 의무

가.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호소한 후에 남편들에게 어떤 진지한 훈계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무시할 경우 어떤 영적 결과를 받게 되는가? 벰전 3:7.

“남편은 동정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의 아내를 도와주어야 한다. 만일 그가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줌으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가 나누어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재림신도의 가정, 218.

나. 회심하지 않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라. 삼상 25:3, 14, 17, 23~25.

“남편이 자기 아내의 행동에 대하여 압제적이고 가혹하며 비판적이면, 그는 아내의 존경과 애정을 받을 수 없으며, 그 결혼 관계는 아내에게 증오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은 까닭이다. 남편은 조심성 있고, 정중하며, 변함이 없고 충실하며 인정이 깊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을 표시해야 한다. ... 남편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고상한 품격, 순결한 마음, 향상하는 정신을 가질 때, 그것들이 결혼 관계에서 나타날 것이다. ... 그는 그의 아내를 건강하고 용기 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재림신도의 가정, 228.

다. 아내에 대한 참 그리스도인 남편의 태도는 어떠해야 아내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격려할 수 있는가? 엡 5:25, 28, 33; 골 3:19.

“남편들은 모범을 연구해야 하고, 에베소서에서 제시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남편은 가족의 구세주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상한 남자다움을 유지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고양시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 모든 남편과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단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보리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가족 모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연구하라.” - 원고모음 21권, 216.

5.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상사”가 없음

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가? 창 2:23, 24; 마 19:4~6.

“남편도 아내도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도하기 위하여 원칙을 세우셨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하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두 사람은 친절한 정신을 계발시킬 것이요 결코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106, 107.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으면 자신의 말을 조심할 것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며 복종할 것이나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생각지 않고 남편의 동무로 생각할 것이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는 자기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독단적이거나 가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에 붙잡혀서는 가정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은 주의 정신이 거하는 가정만이 하늘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

한 편이 잘못하는 경우에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관대함을 발휘할 것이요 냉정히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들은 혼인 식장에서 서약한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11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36

1. 배우자를 향한 나의 태도와 목소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신 원칙을 더욱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는가?
2. 왜 더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3. 왜 하나님은 나의 배우자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가?
4. 내 생각 속에 배우자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배우자와 나는 우리가 옷차림, 요리 기술, 자동차, 전자 제품, 집 등과 같은 소유물에 있어서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왜 현명한 일이겠는가?

그리스도인의 태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벧전 3:8)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거칠고 불친절하고 예모가 없는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난폭하고 거만하며 흠잡기를 일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재림신도의 가정, 427.

참조할 연구교재: 재림신도의 가정, 421~429.

첫째 날(일요일)

5월 19일

1.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

가. 베드로는 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벧전 3:8.

“예절의 가치는 거의 인식되어 있지 않다. 본심에는 친절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태도가 불친절한 사람이 많이 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온화한 태도가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 결함은 자신의 행복에도 방해가 되고, 남에게 행한 봉사의 효과도 떨어뜨린다.” - 교육, 240.

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유의 어떤 태도를 특히 강조하는가? 벧전 3:9; 마 5:44.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의와 겸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의가 바르셨다. 그 분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모를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 치료봉사, 489.

“이 신앙은 우리가 가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곳으로 나아갈 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 성경적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는 인내와 온화함과 극기와 자기희생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248.

2.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살핌

가. 베드로는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어떤 중요한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는가? 시 34:12, 13; 벰전 3:10.

“사단은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해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로 악감정을 품게 하며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 준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공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꾀사한 말에서 금하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단은 자화자찬하는 마음을 이용해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활동이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리라. 말을 조심하여 사단이 그대들에게 그 자신의 역사를 반복시키지 않도록 하라.” -하늘을 향하여, 114.

나. 이 원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특히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당혹감과 불명예를 안겨줬는지 들어보라. 삼상 14:24~27, 43~45; 에 6:6~10.

“초조함, 거침 혹은 걱정의 말은 한마디라도 그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의 요구에 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의 인생을 지도하시면서 그대의 마음과 양심을 제어하실 것이다. 성급하고 분별없는 말로 그대의 자중함을 결코 상실하지 말라. 그대의 말은 깨끗하며 그대의 대화는 성결한지 살피라” -새자녀 지도법, 219.

다. 이 원리를 어기면 많은 사람이 영생을 부여받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벰전 3:10[하단]; 계 14:5; 21:27.

“차와 커피를 마시는 이들을 사교적인 연회에서 만나면 해로운 습관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 자극적인 영향이 느껴질 때 그들의 혀가 풀린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한 말을 시작한다. 그들은 말이 많거나 함부로 말한다. 흔히 험담과 중상이 나돌게 된다.

이 생각없이 험담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한 증인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보이지 않는 증인은 하늘 책에 그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차 한 잔에 흥분하여 표현한 이 모든 불친절한 비평과 과장된 소문들, 질투하는 감정들을 그분 자신에 대한 것으로 기록하신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23.

3. 평화를 추구함

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또 어떤 중요한 원칙을 상기시켜 주는가? 벵전 3:11; 사 1:16, 17.

나. 우리는 어떻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렘 13:23과 고전 6:9~11; 요 3:5; 약 4:7을 비교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난 영광스러운 변화를 그들의 생활에 나타내야 했다. ...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영혼들이 사단의 대열에서 인도되어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일어난 변화에 대해 어떤 공로도 주장해서는 안 되었다. ...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려는 위대한 사업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한 가지 요소이다. ...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인간과 신의 협력 없이는 인류의 회복에 있어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도록 그분의 계획을 세우셨다. 인간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것은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회심한 후 죄인의 삶에 나타나는 큰 변화는 인간의 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19.

다.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켰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유혹에 패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약속이 주어지는가? 벵전 3:12; 요 14:13, 14.

“모든 사람은 믿음과 기도로써 복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강제로 범죄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자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고 불의가 양심을 이기기 전에 심령은 범죄의 행동을 의도해야 한다.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죄에 대한 핑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벵전 3:12). 시험받는 영혼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속절 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 버리라. 그리고 바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님께서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대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비와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 교회증언 5권, 177.

4.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함

가. 베드로가 한 어떤 실용적인 조언을 따를 경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벰전 3:13; 잠 15:1.

“성난 사람에게 대꾸하는 말은 대개는 분노를 열화처럼 타오르게 하는 채찍질과 같이 작용한다. 그러나 침묵으로 대응할 때 분노는 급속히 사라진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고 사납고 참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여야 한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5, 136.

나. 우리가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워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벰전 3:14, 16, 17.

“예수님 자신은 결코 타협으로써 화평을 사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부름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신령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시대의 소망, 356.

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친절의 근원은 무엇인가? 벰전 3:16[상단]; 행 24:16; 히 9:14.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음이 나와 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 앞에 정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대의 생활과 품성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시하신 의의 표준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라.” - 리뷰 앤 헤랄드, 1901.9.3.

5.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아는 것

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수 1:8; 시 119:11; 뱀전 3:15; 딤후 2:15.

나. 오늘날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큰 위험에 처해 있는가? 호 4:6.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위치에 놓여 있는가? 나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실패하고 있음을 보았다. 무서운 장면, 품성의 가치를 시험할 환난의 때가 바로 그들 앞에 있다.” -교회증언 1권, 507, 508.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 우리들은 매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 할 때에 안전하지 못하다. ...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긴요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59, 360.

“많은 이들은 목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바란다. ... 그런 자들은 많은 것을 잃는다. 만일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다면 ... 그들은 그분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 경험의 부족으로 진리를 공언하는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퍼 놓은 불꽃 속으로 걸어 간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믿음에서 떠난다. 그들은 불안정한데 왜냐하면 그들 자신을 위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2권,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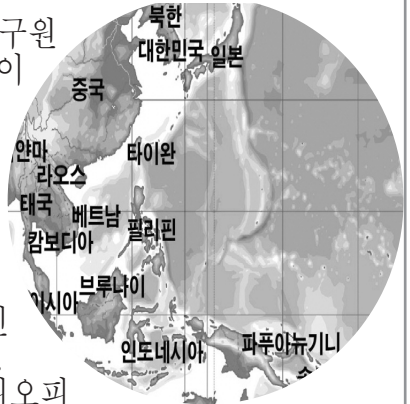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2

1. 배우자, 자녀, 형제, 직장 동료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2.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주요 단계를 말해 보라.
3.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순수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과 친절한 말과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의 차이를 설명하라.
5. 내가 공언하는 신앙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

태평양 지역 해외 선교 계획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막중한 일이다.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78억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들이 그분께로 돌아올 기회를 갖기를 원하신다.



태평양 지역에는 도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많은 종교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비종교적이거나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해야 할 정말 큰 일이 있다.

“전세계는 복음을 위하여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디오피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내어 밀고 있다. 일본, 중국, 인도로부터, 우리 대륙 중의 아직 어두운 지방으로부터, 세계 각지로부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려는,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그리스도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이 지식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과 같은 자격을 가졌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하는 것은 이 지식을 이미 가진 우리들의 책임이요, 또한 우리에게서 이 지식을 나눠가진 우리 어린이들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교육, 262, 263.

비록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동일한 자유를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리는 인간의 마음에 다가가는 길을 찾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개혁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번 안식일에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 그분의 왕국을 위해 더 많은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진리가 전진하려면 이 거대한 활동 지역의 북쪽 지역에서 진리의 대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예배 장소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0, 11)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0, 11)

-멀리 있는 형제자매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침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벧전 3:21)

“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단호한 노력으로 주를 붙잡고 있는 모든 도시의 교인들에게 간청한다.” -건강에 관한 권면, 548.

참조할 연구교재: 정로의 계단, 17~22.

첫째 날(일요일)

5월 26일

1. 유일한 구원의 길

가. 베드로는 유일하게 가능한 구원의 길에 관해 글과 설교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벧전 3:18; 행 4:10~12.

나. 하나님은 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없으셨는가? 사 26:10과 롬 8:7을 롬 5:10과 골 1:20~22과 비교하라.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이 교통하였다. ...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는 더 이상 거룩함의 기쁨을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으려고 했다. ...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心琴)에는 아무런 공명(共鳴)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鼓舞)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背馳)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除外)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17, 18.

2. 그분의 부활을 통한 확신

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을” 받았는가? 벰전 3:21[하단]; 고전 6:14; 15:22, 23; 살전 4:13~16.

나. 베드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행 2: 22~24절을 벰전 3: 18절과 비교하라.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정해진 시간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죄수로서 돌로 된 감옥에 있었다. …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고 오직 그분의 아버지만이 그분을 석방하실 수 있었다.” -청년 지도자, 1901.5.2.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로마 과수병들과 사단의 무리들, 그리고 하늘의 우주 앞에서 영광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높이라, 102.

“그때 힘센 천사가 땅을 진동시키는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였다. 그리고 죽음과 무덤을 정복할 권세를 얻으신 분이 나오셨다.” -현대진리, 1886.2.18.

“하나님은 능력을 입으셨다.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데려가실 수 있으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에 되살려 주실 수 있다.” -청년 지도자, 1895.2.7.

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모든 성도들을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며, 그것은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한가? 롬 8:9~11.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분의 것으로 주장하실 것이다. 죽을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은 모든 믿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 놓을 것이다. …

생명의 수여자께서는 첫째 부활에 자신이 사신 소유물을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 … 생전에 저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들이 되었으므로 저들을 사망에서 불러내실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271.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오늘의 나의 생애, 295.

3. 복음을 뒤따르는 “능력”

가.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호소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뵤전 3:18[하단], 19, 20.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이 구절을 잠 5:22; 사 42:6, 7; 61:1과 비교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심령에 끊임없이 호소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인식하라고 호소하신다. … 그리하여 그분은 각 시대의 인류에게 호소하셨다.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278.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 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시대의 소망, 669.

나.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는가? 요 14:12, 16, 17; 20:21, 22; 행 1:2.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自主)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그분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의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69.

다. 마지막 때에 사도 시대보다 더 크게 성취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는가? 율 2:28~31; 호 6:3.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

4.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침례

가. 구원에 필요한 완전한 침례를 설명하라. 막 1:7, 8; 요 3:3, 5.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다. ... 그들의 첫 사랑이 얼어붙어 버렸으며, 그들이 성령의 침례로 다시 적셔지지 않는 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 한, 그들의 축대는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67, 168.

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한 서약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히 5:11, 12; 6:1, 2.

“침례 서약에 성실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열성은 형식과 세속적인 야망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식어 버렸다.” -교회증언 9권, 155.

“일꾼들이 하나님을 위한 참된 선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매우 필요하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55.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을 때,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복음전도, 702.

다. 우리의 침례 서약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벰전 3:21과 히 9:14; 롬 8:9, 10을 비교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양심이다. 많은 사람의 양심이 죄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하늘의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져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영문시조, 1892.7.25.

“성령 외에 누가 마음에 의의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며 죄를 확신하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며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고취하겠는가?” -가려 뽑은 기별 3권, 137, 138.

5.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정함

가.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어디를 지적하는가? 벤전 3:21[하단], 22; 히 8:1.

“[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으사 하나님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가 가지셨던 영광과 또는 최고의 존경을 받으신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의 선물을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신다. …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다함이 없는 창고, 곧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 그분을 알기 위하여, 338.

“주님께서서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기이한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허다한 천사들에게 옹위되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사단이 자신의 합법적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분의 손에 쥐셨으며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신 놀라운 사업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도록 회복하셨다. …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자신이 지은 죄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제한되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만약 그대들이 이 뜻을 이해하려면 그대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언쟁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밝히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수천수만의 영혼들이 저들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행실을 요구하셨고 율법 역시 선한 행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행이 전혀 무가치한 죄 가운데 처하므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중보하시기 위하여 항상 살아 계시므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로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는 초청을 수락하는 일뿐이다. 인간이 범하는 어떤 죄든지 갈바리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열렬한 호소로서 계속적으로 죄인에게 철저한 속죄를 제공하고 있다.” - 가려 뽑은 기별 1권, 34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7

1.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더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2.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3. 성령께서 나를 봉사에 사용하시는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무엇인가?
4. 성령의 침례를 충만하게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믿음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가?

새로운 생애를 삶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2)

“진정으로 성화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펼쳐지자마자 그 말씀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이며, 그들은 또한 교리의 모든 점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여줄 것이다.” - 믿음과 행함, 121.

참조할 연구교재: 내가 그분을 알려하여, 104; 선지자와 왕, 701, 702.

첫째 날(일요일)

6월 2일

1. 끊임없이 격려하는 생각

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유혹과 고난에 시달릴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 무엇을 고려하라고 조언하는가? 벧전 4:1; 히 12:3.

“우리는 자주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 구세주의 겸비하심에 대하여 명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각성시킬 수 있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361.

“[벧전 4:1 인용] 우리에게 물어 보자.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처지에 계셨으면 어떻게 행하셨겠는가? ... 그리스도의 모본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 그분의 왕위를 떠나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부를 희생하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분의 모본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교회증언 4권, 79.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시련과 유혹에 굴복하고 친구들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

광야에서 홀로 그들에게 가해지는 그 어떤 유혹보다 더 극심한 유혹을 받으셨다. 저들로 절망에 빠져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내민 손을 붙잡기 위해 떨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라. 저들로 저들의 무력한 영혼을 예수님께 내맡기도록 하라. 그분은 그 땅을 통과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줄을 아신다.” - 원고모음 21권, 12.

2. 고난을 통해 승리함

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도록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인가?
벧전 4:1[하단];고후 12:7~10.

“구주께서 그분의 영광의 찬란한 광선으로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 그는 자신이 모독한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그의 지각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둔감하게 만들었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058.

“나를 압박했던 한 가지 큰 두려움은 내가 의무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위한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을 받은 자로 나 자신을 선언한다면 죄스러운 높임에 굴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내 영혼을 잃게 된다. ...

계시에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을 나아가 전해야 한다면,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도록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만일 내가 교만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분의 손을 내게 얹으사 나로 하여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네가 성실하게 기별을 전하고 끝까지 견디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엘렌.화이트의 그리스도인 경험과 교훈, 67, 68.

나. 육체의 죄된 욕망에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벧전 4:2, 15; 엡 4:17, 22~24.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거짓 기초 위에 건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취할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제시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71.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 그는 이전의 쾌락들을 버린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믿음으로 살리라, 139.

3.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습관

가. 베드로가 언급한 죄의 정욕 중 흔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벤전 4:3.

음탕함, 정욕: “부패하는 이 시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방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행적으로 나타내는 일이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된다. … 음란, 퇴폐, 간음이 …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시대적인 현상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무리들이 야수적인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 무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재림신도의 가정, 329.

지나친 포도주: “부절제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술, 맥주 및 독한 음료를 전적으로 끊는 것이다. …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아니할 사람은 곧 이기는 사람이다.” -새자녀 지도법, 401, 402.

향락과 연회: “품성과 신앙 경험면에 피상적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이들이 마귀의 미끼로 이용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쾌락이나 운동 회합에는 민감하며 그들의 감화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 성경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써 왔던 젊은 남녀들은 이 회합에 참여하도록 설득된다. … 그들은 이러한 오락들이 영혼들로 … 그리스도의 의(義)인 품성의 흰 두루마기를, 그들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518.

“건강개혁을 채택한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모든 것을 버렸으나 이 해로운 것들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기뻐하는대로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욕에 몰두하여 과식한다. …

그리고 과식이 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위장은 약화되며, 소화기관은 연약해지고, 연달아 일어나는 불행과 더불어 질병이 초래된다. …

그들은 기분이 상하여 저희 자녀들이 아주 나쁜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저들에게 침착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한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가정에서 침착하게 행동하지도 못한다.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희 병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며, 그들이 허약한 결과로 고통을 당해야 한다. … 그러나 건강 개혁자일지라도 음식의 양에 과오가 있을 수 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5, 136.

가중한 우상 숭배: “그들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들의 가중한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보존하지 말라. 재료가 아무리 귀하고 기술이 정교하더라도 이교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영문시조, 1881.1.13.

4.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처럼

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 이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흔한 결과는 무엇인가? 벰전 4:4, 12.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 사단은 인간 대리자들을 고용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조롱할 것이다.” -선지자와 왕, 659.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선지자와 왕, 590.

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벰전 4:5, 13~16; 벰후 2:12.

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행동할 때와 반면에 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벰전 4:17~19; 마 5:44.

라.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하며, 어떻게 이러한 정신 상태를 얻을 수 있는가? 벰전 4:6; 엡 2:3~5; 딤후 2:24~26.

“진리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대들의 독특한 견해들을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하지 말 것이다. 그대들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먼저 그들과 이야기하라.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그대들의 탄원을 호소하라. 그리하면 그대들과 저들이 다 같이 하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편견은 적어지고 저들을 접촉하기에 더욱 쉬어질 것이다.” -복음전도, 446.

5. 모든 상황에서 기억함

가. 우리가 형통하든지, 건강하든지, 행복하든지, 병들든지, 슬프든지, 손실을 입든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벰전 4:7.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벰전 4:7)고 권하였다. …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96~98.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권고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히 3:14) 지켜야 할 모든 영혼에게 필요 된다.” -사도행적, 51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2

1.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끄시는가?
3. 나는 아직도 이전의 세상 정욕의 노예인가? 그렇다면 완전한 행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연기할 계획인가?
4.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5. 내가 가져야 할 만큼 강렬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열렬한 사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114.

참조할 연구교재: 교육, 113~118.

첫째 날(일요일)

6월 9일

1. 사랑의 깊이 - 훌륭한 지표

가. 죄가 어떻게 우리 사랑의 깊이를 왜곡시켰는가? 창 3:12.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였다. 그러므로 [그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그는 이 별한다는 생각만해도 견딜 수 없었다. ...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였다.

[후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57.

나.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가? 요일 2:9; 4:20; 요 13:35.

“지난밤에 나는 적은 무리가 종교적 모임을 갖기 위해 함께 모이는 꿈을 꾸었다. 그 모임에는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자유의 정신이 없었고 주님의 영은 묶여 있었다. 목사가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정신은 결핍되었다고 말하였다. ... 함께 모인 사람들 누구에게도 유쾌하게 됨이 없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 낯선 사람이 일어나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과 그들의 경험에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157.

2. 사랑의 원리를 이해함

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개념은 어떤 원리로 세워졌는가? 눅 6:32~34.

나. 신성한 사랑은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졌는가? 마 5:44, 45; 요 15:13; 요일 4:7~11.

“사랑은 충동이나 감정 그 이상이다. 그것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작동하는 원칙이다.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인도된다. 거기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정복되고 부드러운 마음의 엄격한 결의가 담겨 있다.” -영문시조, 1900.6.20.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국에 가는 길이 얼마나 더 쉬울까! 하나님의 축복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주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해서 그분의 입술에 맴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대의 감정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구름이 때때로 그대의 경험의 지평선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모래 같은 감정의 기초 위에 있지 않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확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길이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역경과 시련은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줄 기회를 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10.10.20.

다. 침례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과 관용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롬 8:7~10; 요일 4:8.

“참된 성화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의 끈으로 신자 상호간을 결속시킨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풍성한 사랑의 흐름을 마음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랑은 다시 상호간의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게 한다.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특성은 그리스도의 품성, 즉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

사람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이다.” -성경주석[화잇 주석] 5권, 1141.

3. 배워야 할 원칙

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일상 생활에서 배우고 실천하라고 명하는 거룩한 원칙은 무엇인가? 벵전 4:8[상단]; 1:22.

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인가? 벵전 4:8[하단]을 잠 17:9; 약 5:19, 20과 비교하라.

“네 형제가 너를 해쳤다고 생각하거든 친절과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라. 그리하면 이해하고 화목해질 수 있다. 그대가 실수한 사람을 대할 때, 그대는 그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가서 그와만 사랑으로 이야기하라. 그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면 그대는 형제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를 얻은 것이며, 그대 사이의 해결은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의 어려움을 알 필요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의심하며 지켜보고 그의 동기를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1.2.24.

“성경은 실수한 자를 관용과 깊은 배려로 다루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만약 현명한 방법을 취한다면 현저하게 고집 세고 완고하게 보이는 마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 주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필요가 없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결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67.

“사도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벵전 4:8)고 기록하였다. 형제나 자매에 대한 나쁜 보고를 듣지 말라. 이웃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고발하는 사람에게 그가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물어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지시를 남겨 주셨다. 네 형제에게 가서 그와 너만 상대하여 그의 잘못을 말하라.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다. 비난 받아야 할 사람과 그대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규칙은 매우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대와 비난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불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지침은 동일하다. 그대의 형제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에게 누구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대한 소문을 그에게 말하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라.” -하늘에서, 292.

4. 사랑의 필수적인 열매

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거한다는 좋은 표시로 품성의 어떤 특성을 지적하는가? 벵전 4:9.

나. 손님 대접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미덕인 이유는 무엇인가? 히 13:2; 롬 12:13.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서도 참된 환대가 거의 없다. 우리 백성 중에서도 환대를 베풀어야 할 기회를 마땅히 생각할 만큼 특권과 축복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 너무 사귀성이 적고, 가족 식탁에 두세 사람의 자리를 더 만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거창하게 차린다. 어떤 이들은 ‘너무 일이 많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만일 ‘특별한 준비를 못했지만 우리가 차린 식탁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자주 드러내는 이기적 관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정신을 간직하는 각 가정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순결한 원칙들에 의하여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잃을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43, 344.

“나는 고귀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언하나 자기애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생활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 남들을 위해 행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 남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해당도 안 되는 일이다. ... 자아는 우상이 되었다.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늘 기록에는 친절한 행동, 남을 위한 희생, 주린 자를 위한 공배, 벗은 자를 입힘, 나그네를 영접한 일 등이 남아있지 않다.” -교회증언 2권, 26.

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어떤 피상적이고 잘못된 “접대”를 하고 있는가? 욥 1:4; 왕하 20:13~15.

“주님께 속한 시간을 다 잡아먹는 손님 접대 준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있어서 멋지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이 생긴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만들고자 주부는 과로하게 되며,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손님들은 과식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과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과식으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을 얻게 된다. 이러한 거창한 잔치는 부담이며 손해이다.” -교회증언 6권, 343.

5. 참 그리스도인 봉사

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가지 측면을 말해보라.
벧전 4:10.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셨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하도록 사람들은 교육과 실천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신의 적절한 영역에 처하여 책임을 감당하기에 적합해지는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현명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교회증언 9권, 221, 222.

“특히 젊은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훈련하고 총명해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들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가납될 만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계시나 과학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라. ...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는 그 가치가 증가하도록 활용되어야 하며, 모든 개선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대의 태도나 목소리, 교육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런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교육과 종교적 경험 모두에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주의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을 많이 제공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213~215.

나.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봉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벧전 4:11; 골 3:2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5

1. 신성한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그리스도인 사랑의 기초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3.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한 접대 습관을 기를 수 있는가?
4.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 봉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5. 나의 일이 부주의하고 무성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6)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 신사는 아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정신이 편만해 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60.

참조할 연구교재: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47~359.

첫째 날(일요일)

6월 16일

1. 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경험

가. 사도 베드로는 언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 참된 목자가 되었는가? 마 26:75; 요 21:15~17; 벧전 5:1.

“베드로는 슬픔의 사람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는 회개하고, 재 회심하였다. 그는 심령에 진정한 통회를 체험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그의 구주께 바쳤다. ... 그는 시험당하는 이들에 대해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겸손해졌으며,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이들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었다. 그는 신성 모독자들에 대해 주의하고 경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형제들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었다.” -교회증언 3권, 416.

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가? 요 3:1~3.

“니고데모는 이 회견의 결과로 회심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합회장들과 교회 장로들에게, 또한 우리 기관에서 공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각별하게 주어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69.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것이다. ...

목사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643.

2. 권위 있게 권고함

가. 어떤 사람을 봉사하도록 부르기 전에 교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은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벤전 5:2[상단].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주신 분명한 증거 없이 일터에 나가도록 격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보여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양떼를 돌볼 책임을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깊은 경험을 가지고 시련으로 연단된 사람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온유한 정신으로 담대하게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 양 떼를 어떻게 먹이는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교회증언 1권, 209.

“상담가의 책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덜 중요하게 매기기 전까지는 결코 현명한 인물이 못될 것이다. ...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과 관련해서 그가 지도자나 관원의 자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모든 사람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71.

나. 베드로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을 경고했는가? 벤전 5:2[하단].

“다른 사람에게서 천부적인 권리까지 빼앗아 버리려는 결심을 갖고 많은 임금을 움켜쥐려는 욕구는 사단의 마음속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 ... 그들이 철저히 회심하고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덫에 걸린 사람들을 거의 신뢰할 수 없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93.

“신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다루는 재물을 하나님의 수입으로 여기고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주님의 돈을 사용하고 지출하는 권한은 어느 한 사람의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지출된 모든 재정에 대해 계정을 제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재물은 합당한 때와 합당한 장소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의료봉사, 165.

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보수가 높은 직업은 아니지만, 교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딤편 5:17, 18.

“우리 기관의 모든 사역자는 공정한 급료를 받아야 한다. 사역자가 적절한 보수를 받으면 대의를 위해 기부한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금액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필수적이고 신실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출판봉사, 239.

3. 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함

가. 막중한 책임을 맡은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벤전 5:3; 요삼 9.

“지배하려는 정신이 우리의 합회장들에게 뻗어가고 있다. 자기 뜻대로 지배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 힘에 대해 자신만만하고, 그 형제들을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훌륭한 최선책은 그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커다란 해를 입지 않고,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인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62.

나. 모든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어떤 호소가 주어졌는가? 만일 이를 따른다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형제들 사이의 교만과 자만심이 방지될 것인가? 벤전 5:2[상단]; 고전 6:2~5.

“나는 배틀크릭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앉은 자들에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오임을 보았다. ...

많은 사람들은 궁지에 빠지게 될 때 편지를 쓰거나 권면과 조언을 구하도록 자신을 길들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기관들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적으로 타인을 의지하도록 교육받은 이들은 연약하고 병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다. ... 배틀크릭의 인물들이 무한한 지혜를 갖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여겨져야 하는가?”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75.

“고위 책임자에게서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책임 있는 지위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증거로 간주하는 위험에 빠져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인간적 수단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교인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연약하다. 궁핍과 근심에 싸여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도 유한한 인간들이 작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느라 수천 달러의 돈이 불필요하게 허비되고 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80.

다.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성공을 위한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부족하여 실패를 초래한 예를 들어보라. 벤전 5:5[상단]; 왕상 12:6~8, 16; 눅 6:39.

“젊은이들이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485.

“젊은이들로 가르침을 잘 듣는 정신을 배양하여,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익을 얻게 하라.” -청년 지도자, 1893.8.31.

4. 베드로의 겸손의 모본

가. 한번의 진정한 회심이나 주님과과의 경험만으로는 목사나 모든 신자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후 13:5; 히 3:13.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그의 신중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었다. 한동안 그는 하늘에서 받은 빛에 따라 행하였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 식탁에 앉는데 대하여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교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지각없이 변경시켰다. ...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 편에서 이와 같이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다. 교회는 분열될 위험에 직면했다.” -사도행적, 198.

나. 목사, 전도사, 교회 지도자의 실수나 행동이 교회에 공개적인 쓰라림이나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들은 어떻게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갈 2:14; 딤편 5:20.

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을 때 거듭난 지도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벰전 5:5[중단], 6; 약 5:16.

“그러나 베드로의 이중 행동으로 교회에게 해를 끼친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한 바울은, 그의 진정한 감정을 이처럼 위장함에 대하여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다. 바울은 교회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었다.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종말을 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

올바른 원칙에서 떠난 이러한 역사 기록은 하나님의 사업에 중임을 맡은 사람들로 성실성에 실패함 없이 원칙을 굳게 고수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된다. 인간 대리자가 더 큰 책임을 맡고 지시하고 통제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될 때, 만일 그가 주의 길을 주의 깊이 따르지 아니하고, 전체 신자들의 연합 회의에서 결의된 결정들과 일치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적, 198, 199.

5. 지친 사역자들을 위한 격려

가. 복음 사역자의 삶에서 흔히 낙담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벰전 5:5[하단].

“우리에게는 체험이 미약하고, 그리스도인 덕성 상에 결함이 있고, 헌신이 부족하고, 쉽게 낙망하는 예민한 목사들이 너무 많다. … 고난과 시련을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남겨 주신 유물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아니할 그런 인물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용사로서 진 밖으로 나가 비난을 견디고 짐을 지고자 해야 한다.” -교회증언 3권, 423.

나. 사단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여 우리 중 누군가를 낙담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가? 벰전 5:4, 7.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일을 그 어느 것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자. 이뤄져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다. 함께 상의하는 일이 우리의 특권인 것은 하나 우리는 매사에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해야 한다.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로 그 권세를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로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지도를 의지한다면, 불신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은 죽게 될 것이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87.

“참 목자의 정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신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잊는다. … 그는 위대하신 짐진 자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사도행적, 52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7

1. 내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때는 언제였는가?
2.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왜 교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향한 목표가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아야 하는가?
4.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5. 내가 낙담하는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10.

참조할 연구교재: 가려 뽑은 기별 1권, 126, 127; 각 시대의 대쟁투, 39~48.

첫째 날(일요일)

6월 23일

1.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것

가.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의 결론에서 어떤 진지한 권고를 썼는가? 벧전 5:8.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교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는 별로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활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 사단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고, 그의 움직임은 살금살금 이루어지고, 그의 포열(砲列)은 감추어져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잠자는 정력을 깨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를 보내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공공연하게 나타내고자 하지 않는다. ...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교회증언 5권, 293, 294.

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가야바 궁전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비결로서 나중에 무엇을 배웠는가? 마 26:38, 40, 41.

“자아 신뢰는 경성함과,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도록 이끈다. 물리쳐야 할 외적인 시험과, 극복해야 할 내적인 적과 난처한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단이 그의 시험들을 각기 다른 개인들의 기질과 성격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3권, 445.

2. 그대의 적이 누구인지 알라

가. 사자의 특징을 가지고 오는 것 외에, 우리 영혼의 원수가 종종 먹이에게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해보라. 고후 11:14.

“사단은 그의 계교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경험 있고 경건한 친구들의 기도와 권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리스도인 삶을 살겠다는 좋은 결심을 가지고 _____에 온 청년들 중 다수가 이 우정이라는 허울 아래 그들을 손으로 잡아끌고 가 직접적으로 사단의 울무에 빠뜨리는 그런 젊은 층의 친구들에게 가담하고 있다. 원수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오지 않는다. 그는 짐짓 친근한 태도로, 미숙한 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특이한 유혹들을 제시하면서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교회증언 4권, 207.

나. 특히 휴대폰과 인터넷 접속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영혼을 취하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벰전 2:11; 요일 2:16.

“많은 젊은이들이 ...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는다. 자극적인 애정 소설과 불순한 그림들은 부패시키는 요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탐독한다. 그 결과로 그들의 상상력은 더럽혀진다. ... 나체 상태의 여성 사진이 [특히 온라인]에 자주 유포된다. ... 안목의 정욕과 부패한 정욕이 바라봄으로, 읽음으로 고조된다. 마음은 상상으로 부패된다. 저열하고 낮은 정욕을 일깨우는 광경들을 생각함으로 쾌락을 얻기도 한다. 불길한 상상으로 그려보는 이 악한 영상들은 도덕을 부패시키고 속임을 당하고 얼빠진 사람들이 고삐를 풀고 정욕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을 짐승의 단계로 끌어내리고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하는 죄와 범죄가 따르게 된다. 불순한 생각을 일게 하는 것들을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도덕적 · 지적 능력을 함양하라. ... 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독서를 [그리고 인터넷 접속을] 통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교회증언 2권, 410[괄호 안의 단어는 추가됨].

“사단은 식욕을 통해 정신과 온 존재를 지배한다.”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 위생, 37.

“어머니 자신들의 모본과 그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탐식가들과 술꾼들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

어린 아이들은 빈번히 건강에 관계없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먹고, 그들이 선택하는 때에 먹는 습관에 빠진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5.

3.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

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대적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뱀전 5:9[상단]; 약 4:7.

“그 여자[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55.

“그들이 단지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천박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유혹으로 인해 그들은 조류를 따라 세상으로 떠내려갈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32.

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단의 먹이가 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잠 19:2; 호 4:6[상단]; 롬 10:17; 15:4.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0.

다. 사단의 공격으로 포위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어떤 진리가 격려가 되어야 하는가? 뱀전 5:9, 10; 1:6, 7; 고후 4:17.

“베드로는 교회에게 올 특별한 시련의 때에 대하여 신도들에게 편지하였다.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고 곧 교회는 두려운 박해의 기간을 통과해야 하였다. ... 곧 무서운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 중 아무것도 저희 소망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들에게 낙담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었다. 베드로는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로 신자들의 마음을 현재의 시련과 미래의 고통의 광경에서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향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열렬히 기도하였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 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사도행적, 528.

4. 바벨론의 교회

가. 베드로는 기독교 교회가 “바벨론”에 흠어지고 세상 권세들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역사의 어떤 일화를 보여주는가? 단 3:1~6; 에 3:8; 벧전 5:13.

“우상숭배가 일반에게 보편화된 나라에서 바벨론의 영광과 장려(壯麗)함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두라 평지에 세운 아름답고 진귀한 우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성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낙성 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이 우상 앞에서 절함으로 바벨론인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최고의 충성을 표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

다사(多事)한 그날에는 흑암의 권세들이 현저한 승리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되도록 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권세의 상징인 우상에게 절한 것은 아니었다. ...

[왕은] 극렬히 타는 풀무를 가리키면서 저희가 그의 뜻을 순종하기를 계속 거절한다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증거하였다.” - 선지자와 왕, 507, 508.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개와 같은 사람을 본다. 그분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 선지자와 왕, 605.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異敎)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一掃)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9.

나.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에서 박해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 15:19.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8.

5. 서신 마지막 부분의 교훈

가.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데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 벵전 5:12.

나. 실루아노가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활동적인 선교사이자 동역자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후 1:19; 살전 1:1; 살후 1:1. 이것은 엘렌.G.화잇의 생애와 어떻게 유사했는가?

“저의 남편은 살아 있는 동안에 조력자로 일하였으며 제가 받은 기별을 발송하는 일에 상담자로 도왔다. … 내가 계시 가운데 받은 교훈들을 내가 성실히 기록하였다. …

그 후에 우리들은 함께 검토해 보았으며 제 남편은 문법상의 모순들을 교정하였으며 필요 없는 반복들을 삭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나서 수신자(受信者)들에게 정성스럽게 서간체로 써서 보내거나 인쇄할 것은 인쇄업자에게 넘기곤 하였다. …

제 남편이 돌아간 후에는 충실한 조력자들이 저를 도와주었으며 저들은 증언들을 베껴 쓰는 일과 출판에 넘길 원고들을 준비하는 일에 불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저의 조력자들 중에 제가 기록한 기별의 뜻을 바꾸거나 저들 마음대로 어떤 내용을 추가하도록 묵인했다는 소문들이 돌았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50.

다. 사도들이 세운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 관습이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 계속 실행되어야 하는가? 벵전 5:14.

“언급한 거룩한 문안에 대해서는 그 참 뜻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다. 서로 헤어질 때 또는 헤어져 있다가 몇 주일이나 몇 달 후에 다시 만날 때 그리스도인 친구 간에 나타내는 우정의 표시로써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당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때 그 곳에 악의 모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초기문집, 11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8

1. 자아 신뢰는 어떻게 유혹에 빠지기 전에 오는 경우가 많은가?
2. 어떻게 나의 정욕이나 식욕이 나를 사단의 계략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가?
3. 더 자주 헌신적으로 개인 성경연구를 하는 것이 나에게 왜 도움이 되는가?
4. 공적인 좋은 관계와 잘못된 타협 사이의 균형을 설명하라.
5.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째 안식일 연금



4월 6일

파키스탄 나랑 만디 교회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5월 4일

세계 선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6월 1일

태평양 지역
해외 선교 계획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